

위치	오류유형	수정 전	수정 후		
596p	문제-본문	<p>(3) 옥저 - 동예 : 동예에서는 음악 상호 간에 경계가 설정되어 있어서 이를 침범하는 경우에는 책화라 하여 노비나 우마 등으로 배상하였다.</p> <p>(4) 삼한 : 제정은 일찍부터 분리되어 죽장 외에 제사권을 장악한 '천군'이란 제사장이 별도로 있었으나, '소도'라는 신성 특별구역이 존재하였다.</p> <p><b>▣ 삼국시대</b></p> <p>(1) 광통 - 협박제도는 웅보형주와 기초를 둔 복수형 시대로 협박의 종류가 사행 · 유형 · 강행 · 재산형 등으로 다양해졌고, 강우제도가 정비되는 등 국가공권력이 체계를 갖추게 되었으며, 강우 명칭으로는 뇌옥 · 영어 · 헝을 · 수을 등이 사용하였다.</p> <p>(2) 고구려(수아도설자) : 모반자 · 농민자 · 무왕자 · 살인자 · 겁탈자는 사형에 처하고, 절도죄는 12배의 배상을 하도록 하였으며, 특히 모반자는 가혹한 방법으로 사형에 처하고, 그 가족은 노비로 삼았으며, 재산을 몰수하였다.</p> <p>(3) 백제 : 살인자 · 반역자 · 뇌군자는 사형에 처했으며, 부인이 간음하면 남편 집의 종으로 삼게 하고, 절도죄는 유형 또는 3배의 배상을 하게 하였으나, 고구려에 비해 상당히 원화되었고, 사형의 경우는 복심제도를 실시하였다.</p> <p>(4) 신라(백제와 고구려의 사례) : 형률을 관장하는 기관은 이방부였는데 신라 말까지 존속하였다.</p> <p><b>▣ 고려시대(정형주의의 확립)</b></p> <p>(1) 성종 때에 이르러 3정(중서성 · 문학성 · 상서성) 6부의 중앙집권적 통치체제가 확립됨에 따라 상서성 아래에 6부를 두고, 6부 가운데 행정을 관장하는 행부를 두었으며, 행부 아래에 행옥을 담당하는 전옥서와 노비의 부적과 이에 송사를 담당하는 상서도관을 두었다.</p> <p>(2) 협벌은 태 · 장 · 도 · 유 · 사의 5종이, 부가형으로는 삼부, 경면, 속전, 가제불수 및 노비불입이 있다.</p> <p>(3) 강우제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전옥서 : 최초의 독립행정기관으로 종래 옥, 뇌옥, 영어라고 불리던 구금시설이 전옥서라는 명칭으로 정비하였으며 옥수인을 전임하는 유일한 중앙관서로 수도인 개경에만 설치하였다.</li> <li>② 가우 : 광종 때 노비법 개정과정에서 급증하는 수용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전옥서 외에 임시로 설치한 강우으로 주로 노예수용을 담당하였다.</li> <li>③ 소방 : 자방관아에서 직접 관장하는 부설강우이다.</li> <li>④ 흘령제도 : 고려시대에도 오늘날의 특별귀류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존재하였는데(조선시대 보방으로 발전) 사형의 죄를 범한 자로 옥중에 있을 때 억역 이상이 아니면 부모 · 남편 · 조부모상을 당한 자에게 7일, 유형 · 도형은 30일간 출옥하게 하고, 보증인을 세우도록 하였다. 또한 옥중에</li> </ul> <p>596 교정지 공무원 한다</p>	<p>(3) 옥저 - 동예 : 동예에서는 음악 상호 간에 경계가 설정되어 있어서 이를 침범하는 경우에는 책화라 하여 노비나 우마 등으로 배상하였다.</p> <p>(4) 삼한 : 제정은 일찍부터 분리되어 죽장 외에 제사권을 장악한 '천군'이란 제사장이 별도로 있었으나, '소도'라는 신성 특별구역이 존재하였다.</p> <p><b>▣ 삼국시대</b></p> <p>(1) 광통 - 협박제도는 웅보형주와 기초를 둔 복수형 시대로 협박의 종류가 사행 · 유형 · 강행 · 재산형 등으로 다양해졌고, 강우제도가 정비되는 등 국가공권력이 체계를 갖추게 되었으며, 강우 명칭으로는 뇌옥 · 영어 · 헝을 · 수을 등이 사용하였다.</p> <p>(2) 고구려(수아도설자) : 모반자 · 농민자 · 무왕자 · 살인자 · 겁탈자는 사형에 처하고, 절도죄는 12배의 배상을 하도록 하였으며, 특히 모반자는 가혹한 방법으로 사형에 처하고, 그 가족은 노비로 삼았으며, 재산을 몰수하였다.</p> <p>(3) 백제 : 살인자 · 반역자 · 뇌군자는 사형에 처했으며, 부인이 간음하면 남편 집의 종으로 삼게 하고, 절도죄는 유형 또는 3배의 배상을 하게 하였으나, 고구려에 비해 상당히 원화되었고, 사형의 경우는 복심제도를 실시하였다.</p> <p>(4) 신라(백제와 고구려의 사례) : 형률을 관장하는 기관은 이방부였는데 신라 말까지 존속하였다.</p> <p><b>▣ 고려시대(정형주의의 확립)</b></p> <p>(1) 성종 때에 이르러 3정(중서성 · 문학성 · 상서성) 6부의 중앙집권적 통치체제가 확립됨에 따라 상서성 아래에 6부를 두고, 6부 가운데 행정을 관장하는 행부를 두었으며, 행부 아래에 행옥을 담당하는 전옥서와 노비의 부적과 이에 송사를 담당하는 상서도관을 두었다.</p> <p>(2) 협벌은 태 · 장 · 도 · 유 · 사의 5종이, 부가형으로는 삼부, 경면, 속전, 가제불수 및 노비불입이 있다.</p> <p>(3) 강우제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전옥서 : 최초의 독립행정기관으로 종래 옥, 뇌옥, 영어라고 불리던 구금시설이 전옥서라는 명칭으로 정비하였으며 옥수인을 전임하는 유일한 중앙관서로 수도인 개경에만 설치하였다.</li> <li>② 가우 : 광종 때 노비법 개정과정에서 급증하는 수용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전옥서 외에 임시로 설치한 강우으로 주로 노예수용을 담당하였다.</li> <li>③ 소방 : 자방관아에서 직접 관장하는 부설강우이다.</li> <li>④ 흘령제도 : 고려시대에도 오늘날의 특별귀류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존재하였는데(조선시대 보방으로 발전) 사형의 죄를 범한 자로 옥중에 있을 때 억역 이상이 아니면 부모 · 남편 · 조부모상을 당한 자에게 7일, 유형 · 도형은 30일간 출옥하게 하고, 보증인을 세우도록 하였다. 또한 옥중에</li> </ul> <p>596 교정지 공무원 한다</p>	<p><b>보방 → 보방</b></p> <p>수정 사유</p>	오타 수정

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  
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.